POSTING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2019 Vol.1
창간호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POSTING

발행일	2019. 03
발행호	창간호(vol.1)
발행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편집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행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ippi.or.kr
전화	032-580-6392
디자인 및 제작	㈜032디자인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CONTENT

4 [공공보건의료 Issue]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여부는 협력이 열쇠

6 [Focus on 인천]
인천광역시의 미충족 의료 현황

10 [공공의료 Alive]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인터뷰

12 [지원단 주요일정]
추진성과·향후계획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여부는
협력이 열쇠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임종한 교수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령화의 심화와 가족기능의 약화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삶의 질 제고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집, 그룹홈 등 다양한 주거형태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의 궁극적 목적인 Aging in place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책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정의하고, 2018년 보건복지부는 1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밝혔고, 2018년 3월 12일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케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를 누가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할 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일본 등 커뮤니티케어를 발전시켜온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힘만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하고 싶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료, 복지, 돌봄, 주거, 이동, 일자리 등에 대한 지원이 촘촘해야 하며, 이들 기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포섭하는 치료적 지역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 돌봄, 복지

등 커뮤니티케어 전달과정에서의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커뮤니티케어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맡게 될 제공기관의 공공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익을 앞세우는 기관들이 서비스를 맡게 된다면, 세금은 줄줄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료원,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의 비영리 민간 자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케어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재활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여러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양성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보여집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세부전문의(Specialist) 보다는 일반의(General Physician)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 분야의 경우 임상간호사 외 가정간호사, 지역간호사 등의 많은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례관리 역할을 맡게 될 전문인력의 경우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행위 자체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인 것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게 법제도 개편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시행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두제(capitation) 성격을 가미한 적합한 지불방식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수가가 등급별 월 한도액에서 방문요양과 통합되어 있으므로 요양서비스 외에 방문간호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없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방문간호, 왕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거버넌스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잘 이루어져야 서비스의 공공성이 잘 확보되고, 이는 결국 커뮤니티케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선진국의 경험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미충족 의료 현황

1. 미충족 의료 개념

미충족 의료란 한 마디로 의료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다음의 경우가 모두 미충족 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내가 원할 때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2. 의료 전문가에 의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3.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했다면 예방, 완화, 제거될 수 있었으나 실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질병상태이거나 불능상태인 경우

미충족 의료는 보건의료 접근성(access), 더 나아가 의료불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리지표로, 인구집단의 미충족 의료가 높다는 것은 의료불평등이 심각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미충족 의료의 3가지 차원

미충족 의료의 정책적 함의가 보건의료 접근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 접근성의 3가지 차원인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으로 미충족 의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미충족 의료 경험의 6가지 이유를 차원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Q.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미포함)에 가고 싶을때, 가지 못한적이 있습니까?

❶ 경제적인 이유로
❷ 병의원 등에 예약을 하기가 힘들어서
❸ 교통편이 불편해서
❹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등이 문을 열지 않아서
❺ 병의원 등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❻ 증상이 가벼워서

※ 자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3. 인천광역시 미충족 의료 현황

인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7대 특·광역시 모두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대구, 광주, 울산이 전국보다 감소폭이 큰 데 비해, 부산, 인천, 대전은 전국보다 감소폭이 작습니다. 특히 인천의 감소폭은 대전 다음으로 작았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인천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1-2017년 전국 및 7대 특·광역시 미충족 의료 경험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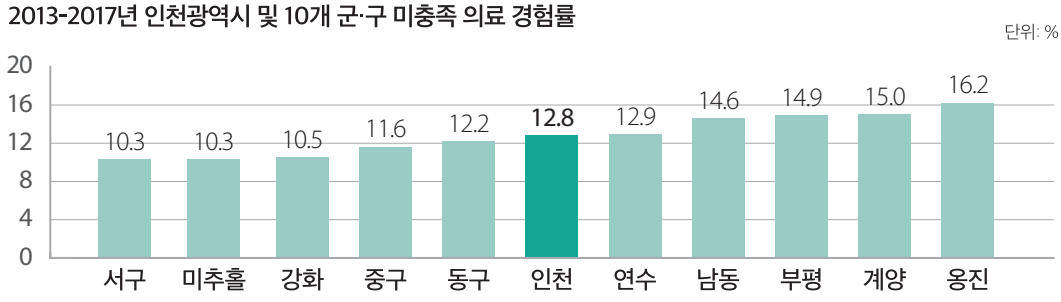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 2011 감소폭(%p)
전국	13.6	11.4	13.6	12.1	12.2	11.5	10.7	-2.9
서울	14.5	13.3	15.0	11.7	11.9	12.0	10.0	-4.5
부산	14.0	11.2	13.4	13.5	12.0	14.5	11.3	-2.7
대구	13.3	13.0	12.6	13.8	10.9	9.4	8.2	-5.1
인천	13.6	12.7	13.3	13.2	13.4	12.0	12.8	-0.8
광주	15.5	13.6	15.4	12.9	12.2	11.9	11.6	-3.9
대전	11.5	10.7	12.8	10.7	11.9	11.3	11.1	-0.4
울산	11.4	10.3	9.6	11.2	8.0	7.4	6.2	-5.2

※ 자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4.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미충족 의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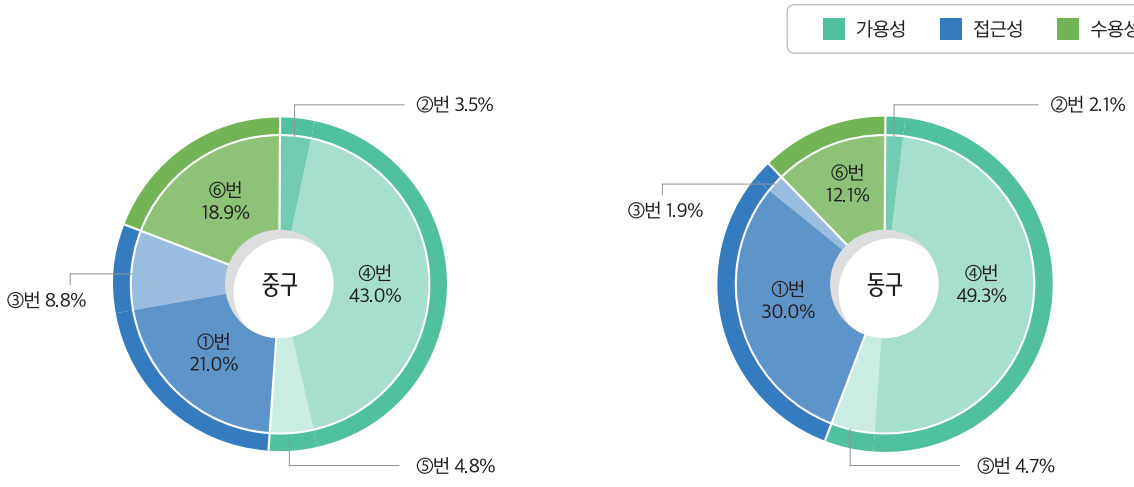
인천 내에서도 군·구별로 미충족 의료 경험률에 차이가 있습니다. 2013-2017년 10개 군·구 중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구와 미추홀구(10.3%)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옹진군(16.2%)입니다. 이들 지역 간 격차는 절대격차 5.9%p, 상대격차 1.6배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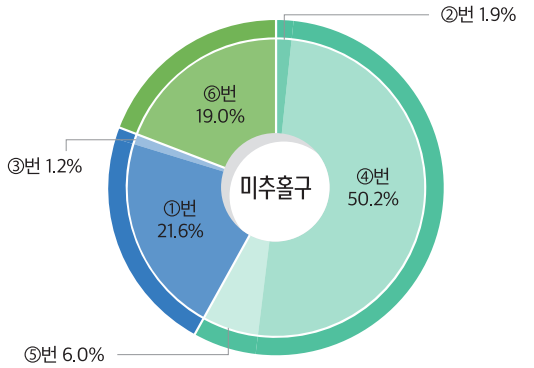
2013-2017년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구 미충족 의료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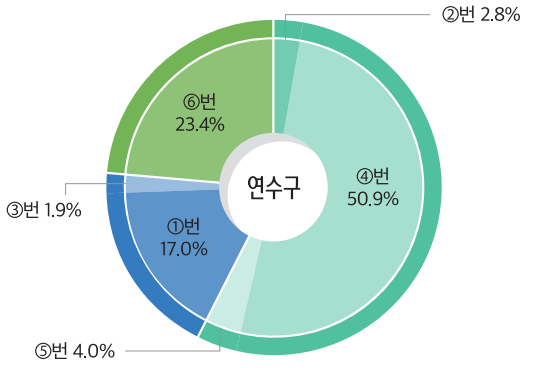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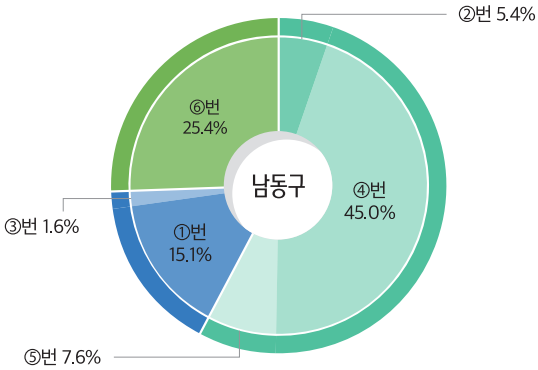
※ 출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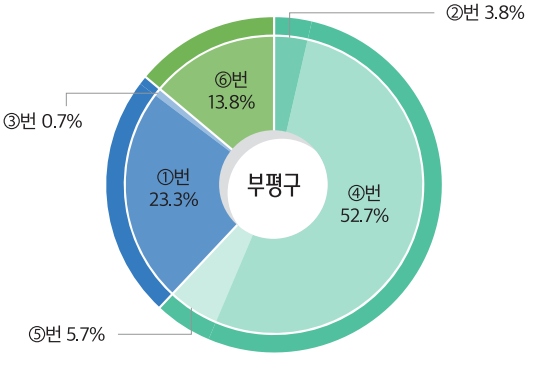
세 가지 차원에 따른 구성비를 살펴보면, 군·구별로 미충족 의료의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이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은 접근성, 그 중에서도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3.9%, 16.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시 지역이지만 영종·용유지역과 무의지역이 포함된 중구 역시 8.9%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구의 경우 '① 경제적인 이유로'의 비중이 30.0%로 10개 군·구 중 가장 높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남동구와 연수구는 같은 문항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았습니다(각각 15.1%, 17.0%). 인천의 미충족 의료 현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발간한 『인천광역시 미충족 의료 현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정책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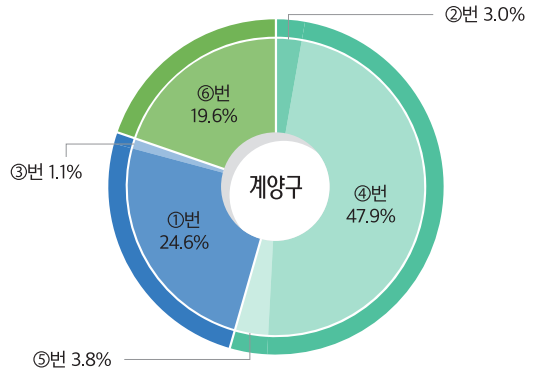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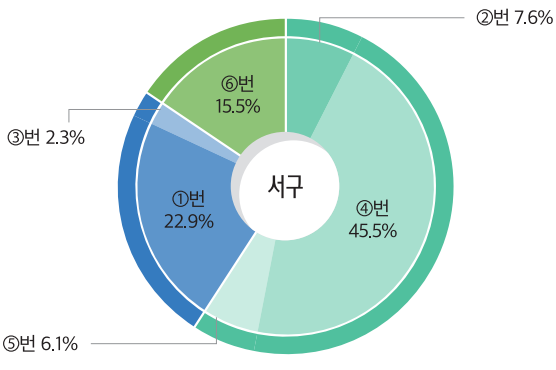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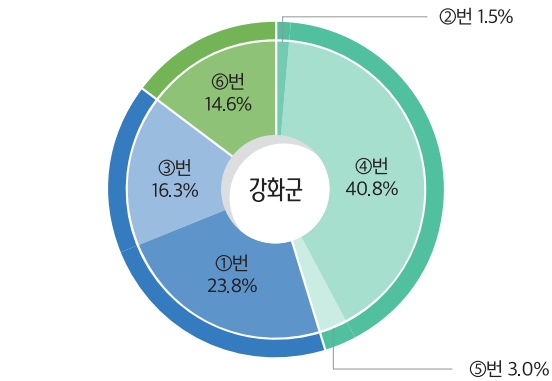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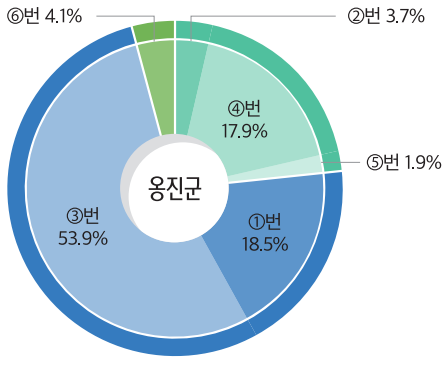












※ 출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2019)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인터뷰

+

인천 공공의료기관 알리기

Q. 인천의료원을 맡으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고 공공병원에 대한 이해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천의료원을 소개해주신다면?

A. 인천의료원은 인천에 하나밖에 없는 시립병원이고 역할이나 해야될 미션을 보면 정말 중요한 역할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변적 여건 때문에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자가 감소하고 있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병원은 의원과 경쟁을 피하고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입원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의료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정부에서 발표한 「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 분야[1]에 대해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4대 분야에서 중요한 점은 특히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보건의료 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상으로 흠잡을 곳이 없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만약 인천의료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첫 번째로 대학병원에 버금가는 2차 병원으로 만들거나 외상, 감염병과 같은 기능을 특화한 진료센터로 만들거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인력 수급인데 지방의료원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국립대 병원이 부재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모 대학병원으로 지정한다면 그 곳에서 보건의료 인력이나 기술지원을 가장 큰 미션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모두 해결이 된다면 책임의료기관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인천의료원이 매년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공공병원이 일반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A. 지금으로서는 병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방향과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의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발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필수의료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이라고 보는데 현재 응급 부분이 너무 취약한 상황이라 올해 사업의 큰 아이템으로 응급실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

A. 환자접근성을 높이려면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으나 결국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의료원이 이런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의료기관이 되기를 바란다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현 인천시는 필수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의사가 있어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들 혹은 인천시민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공공의료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도 결국은 시민의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의료원은 지금까지 형식적인 거버넌스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시민위원회에서는 실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의료원 사업에 참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조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 4.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추진성과

인천시민네트워크 회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과 방향을 살펴보고 참석한 각 기관(인천시의회, 인하대학교, 건강과나눔, 인천평화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본부)에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1월 30일(수) 09:30 ■ **장 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5층 세미나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 간담회

2019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프로그램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9년 교육 추진방향과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2월 27일(수) 14:00 / 3월 14일(목) 15:30 ■ **장 소** 인천시청 4층 소회의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주요 추진성과를 알려드립니다.

2019년 제1차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및 각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이 모여 '국비 지원에 따른 국가 요구 사업과 기존 시·도 사업 간 조정 및 통합',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역할 활성화를 위한 지원단의 과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3월 7일(목) 14:00 ~ 8일(금) 11:30 ■ **장 소** 제주대학교병원 2층 국제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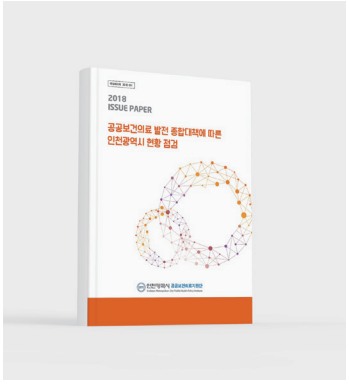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군·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지원

인천광역시 주최로 10개 군·구 보건소에서 수립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및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일 시** 2019년 3월 21일(목) 10:00 ■ **장 소**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동 3층 소회의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고서 발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보고서가 다음과 같이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 전문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pp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른 인천광역시 현황 점검

인천광역시 미충족 의료 현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정책과제

2018 인천광역시 공공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공동발간)

2018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연례 보고서 발간

2018 ANNUAL REPORT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연례보고서

201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의 사업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연례보고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단 및 센터의 연계체계 구축 내용
- 2018년 각 지원단 및 센터의 활동 내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향후계획

2019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작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내용을 고려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관내 6개소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일 시** 2019년 3월 ~ 4월
- **장 소** 인천시청, 인천광역시의료원
- **참석대상** 인천시청 및 관내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2019년 제2차 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재단 연석회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단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차 연석회의는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 **일 시** 2019년 4월 18일(목) 12:00
- **장 소** 그랜드 하얏트 인천
- **참석대상** NMC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관계자 등

2019년 인천광역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정례회의

인천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의 전문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관기관 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회의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사업 발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9년 4월 ~ 5월 예정
- **장 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참석대상** 인천시 보건 분야 지원단 및 센터

2019 인천 공공보건의료포럼 『인천형 공공보건의료와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과제인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을 인천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수준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역할을 논의하고, 기관 간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9년 4월 25일(목) 13:00
- **장 소** 송도 오라카이 파크 호텔 릴리홀
- **참석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 기관장 및 중간관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IPPI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Incheon Metropolitan City Public Health Policy Institute